

정조공파종회 제12회 경로잔치 개최



정조공파종회(正朝公派宗會: 회장. 권인탑)는 9월 25일 오전 11시 안동시 법흥동 파라다이스 웨딩컨벤션 지하 1층에서 제12회 경로잔치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권영목 대사로 도유사를 비롯하여 권기만, 권기룡, 권오탁 등 역대 정조공파 회장,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권용주 부정조공파종회장, 권중덕 시중공파종회장, 권기창 국립안동대 교수, 권경웅 대중원 부총재, 정조공파 60세 이상 종원 및 부녀회원, 울산에서 온 명창 김남숙 참소리국악원 회원 등 모두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순복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상배, 상음례(相音禮)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권인탑 회장은 참석한 내빈을 일일이 소개하고 김광립 국회의원과 권오을, 권택기 두 前 국회의원 등 3명이 "종원 여러분들의 민수무강을 빈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권인탑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여름에는 폭염으로 전 국민이 애를 먹다가 다행히 많은 비가 내려 폭염이 주춤했다"고 회고 하고 "오늘 원근거리에서 종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며 인사했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490여 명에게 총 1억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아울러 후손들에게 보화강좌를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고려초종기 권정평(權正平)의 묘지명(墓誌銘)이 발견됨에 따라 당시 향리에서 중앙으로 진출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며 "이런 것을 보화강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경로잔치에 푸짐한 음식을 마음껏 드시고 울산에서 오신 김남숙 명창과 참소

리국악원의 공연을 꼭 감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주연 안동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정조공파가 해마다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보니 부럽다"고 피력(披瀝)한 후 "최근 정부가 전국의 성씨별 인구조사 를 했는데 권씨 가운데 자신의 본(本)과 파(派)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우리 모두가 그들의 후손을 찾아주자"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누어 치루었는데 1부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화기에애 한 분위기 속에서 푸짐한 뷔페로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 2부 행사는 참소리국악원 회원들이 정조공파 종원을 위해 공연을 했다. 이 국악원 회원을 초청하게 된 것은 정조공파 권순복 총무부장의 초등학교 친구가 국악원 회원으로 있어서 이루어졌다. 진행은 울산에서 온 조강훈씨가 맡았다. 참소리국악원 회원 32명은 국악, 청노래, 기타, 가야금 등 여러

분야별로 나눠 노래와 악기연주를 했다. 1시간 30분에 걸쳐 펼친 공연은 김남숙 명창이 "꽃타령" "단고강산" "성주풀이" "배피워라" 등의 노래를 멋있고 힘차게 불렀다. 남자 1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된 기타팀은 "돌아와요 부산항" "아빠의 청춘" "천년지기" 등 3곡을 연달아 부르고 앙코르 송을 받아들여 "안동역에서"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가야금 병창, 대금 연주, 사철가, 각종 세소리 흥내내기 등을 끝내고 마지막 무대는 신나는 "옹헤야"를 부르자 권인탑 회장과 종원들이 무대로 나와 국악팀과 어울려 신나는 춤판을 벌였다. 김남숙 명창은 "오늘은 너무나 즐거웠고 보람찬 하루였다"며 "내년 경로잔치때도 꼭 초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연이 끝나자 정조공파 임원과 국악팀이 함께 단체로 기념촬영을 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 1장씩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진)

安東權氏와 烏川書院

權伍信(宗報編輯諮問委員, 로타리코리아 고문)

포항지방의 대표적 서원인 오천서원(烏川書院)을 답사하면 이런 의문점이 남는다고 한다. 서원에 배향되신 분은 포은(圃隱) 선생인데 서원의 실제 주인은 안동(安東) 권씨(權氏)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안동권씨(安東權氏)들은 구원투수를 잘 잡는다. 공동체(共同體)가 어려울수록 전면에 나서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역을 잘 맡아서 가문과 나라를 빛낸 선비들이 유독 많다. 이런 정신을 가장 잘 살린 선조가 바로 포항 오천서원(烏川書院) 건립 주역을 맡으신 통정대부(通政大夫) 순천(順天) 공이시다.

우리나라는 문종 서원이 대부분이다. 지역 내 여러 성씨(姓氏)들이 합체로 운영되는 향중서원은 극히 드물다. 동방이학지조(東方理學之祖)이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선생을 배향하는 이 서원은 보기 드물게 여러 성씨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향중(鄕中)서원이어서 더 유명하며 그 중심에 권씨(權氏) 선조가 있어서 후손으로서 기쁨 뿌듯하다.

조선(朝鮮)은 순천(順天)공에게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이 시기에 내리셨다. 연일향안(延日鄕案)에도 안동권씨(安東權氏)가 수위(首位)에 기록되어 지금껏 전해지는 등 연일현(延日縣) 4성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1536~1593)의 위패를 모셨다.

법 연일(延日) 정씨(鄭氏)인 정철의 봉안은 송강의 부친(정유점)이 연일로 유배왔을 때에 따라왔던 송강이 후일 벼슬길에 나서 주문을 했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1888년 오천서원역시 철거령으로 훼손되었으나 고종 말년에 복원되었다. 포항 오천(烏川)은 포은 선생이 이곳에서 40km쯤 떨어진 영천(永川) 입교면 외가(外家)에서 태어나서 오천(烏川)친가로 돌아와 소년기(少年期)를 보낸 곳이자 연일(延日) 정씨(鄭氏)들이 시조 이래 대문종을 이루어서 오늘까지 세거(世居)해 사는 곳이다.

포항엔 여러 성들이 사이좋게 살았지만 종가집이 없다.

오히려 양촌 권근(淸海)이나 우암 송시열(1675년 덕원에서 장기현으로 移拜후 5년간 위리안치), 숙종 때 영의정을 10년간 지낸 석당 권대운(연일), 역시 숙종 16년 장기 적소에서 문명정 영의정 김수흥, 황사영 백서로 강진으로 유배지를 옮긴 다산 정약용(1801년 장기현) 같은 이름 높은 문신의 귀양살이로 더 알려 졌었다.

조선조를 지탱했던 유림(儒林)의 근거지는 되지 못했으나 비교적 가사는 안정적이어서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재실(齎室)이 많이 지어 졌다. 이 재실들이 조선조 후기에 들면서 서원으로 바꾸고 중시조나 입관 의병장(義兵將) 등 문중에서 나라일에 이름을 빛낸 분들을 봉안, 춘추향을 받들어 문종 서원의 중심이 되었다.

인근 장기면에도 광남서원(皇南仁) 등 서원(書院)이 11군데에 이를 만큼 서원이 많은 편이나 사액 서원은 오천서원(烏川書院) 뿐이다. 오천(烏川)은 조선, 고려에서 신라로 올라가면 해동 명승이신 원효(元曉)와 해공(海空)법사가 나는 법담(法談)으로 더 유명해 진다.

공은 1456년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거사가 실패로 끝나자 연일(延日) 대장판 관동으로 강제 이주당한 사정(司正) 權壽海(1410-1466)공의 증손자로 1525년 대장에서 태어 나셨다.

어린 시절 연일 대장판 관동에서 향일재(向日齋)란 편액(扁額)을 걸고 강원도 영월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단종(端宗)을 향해 북향(北向) 4배를 하신 증조부(曾祖父) 사정공(司正公)의 절의(節義)의 불의(不義)정신을 흠모, 묘소를 자주 찾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런 가풍(家風)속에 성장하신 순천(順天)공의 맏아들 여정(汝精)공 역시 입관 때는 의병장(義兵將)으로 나서 저 유명한 경주성 탈환전과 영천수복전, 대구 팔공산과 화왕산 회맹 등 망우당 객재우장군을 도와 큰 공을 세웠으며 전쟁이 끝나자 벼슬을 연연하지 않고 자호(自號)를 송헌(松軒)이라 짓고 송과상(松坡上)에 도남서당을 열어 평생을 대쪽 같은 절의(節義)로 후학(後學)을 양성하면서 청렴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記錄)되었다.

이런 정신이 자연스럽게 고려 말 문신이자 단심가(丹心歌)로 고려와 운명을 함께하신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에게로 향 했다. 공은 향내 러 주 이씨, 수원 김씨, 오천 정씨 등 15개 성씨 대표자 회의를 열어 포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에 사당(祠堂)을 짓고 후학(後學)들이 유학(儒學)을 공부할 서원을 창건(創建)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그 즉시 창건의 주역을 맡아 1588년 선조 때 준공 시켰다.

만년에 선조로부터 참봉을 제수 받았다.

지난해 봄 또다시 향원이 결정된 오천서원 중창(重創)의 역사에도 순천(順天)공의 14세손(孫, 權赫生)이 유사(有事)를 맡으셨다. 400년이란 시공을 뛰어넘어 그의 후손이 중창 역사의 주역을 다시 맡아 문중을 빛내었다.

오천서원의 혁신(赫性)유사뿐만이 아니다.

이런 사연이 서원 창건 역사의 전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천 서원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1588년 선조 21년 포항시 정림동에서 창건, 1613년 광해군(光海君) 5년 사액서원(賜額書院)으로 지정되자 현재의 장소로 이전, 충정묘(忠正廟, 3칸 1동)와 신문(神門) 강당(講堂) 7등을 위에서 밑으로 배치하는 조선시대 서원 건축양식(建築樣式)인 맞배형 골기와 집 형태를 충실하게 따라 지어 졌다.

이집의 형제 세분이 모두 종사 일에도 앞장서 망형(8, 赫和)은 봉산재(鳳山齋, 좌윤공파 司正公 權壽海의 묘소와 재실) 관리 위원장으로, 둘째 형(7, 赫熙)은 포항시 대장동에 위치한 사정공(司正公) 유허비(遺墟碑)를 10여 년째 보살피고 있다.

오천서원(烏川書院)의 특별한 점은 향중서원이다.

烏川는 歷史的으로도 유명한 곳. 창건당시 오천서원(烏川書院)엔 연일(延日) 정씨(鄭氏) 시조이신 형양공 정습명(鄭襲明)과 11세손인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1337-1392)를 주향으로, 1740년 영조(英祖) 16년 가사문학(歌辭文學)의 대가이신 송강(松江) 정철(鄭澈

2016년 丙申年 清白吏 典翰公 秋享祭 안내

謹啓時下 仲秋之節에 玉體健勝 하옵시며 하시는 일들 날로 繁昌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아래와 같이 병신년 청백리 전한공 추향제를 올리오니 죽친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日時: 2016년 10월 29일(土) 오전 10시 / ◎場所: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남산골 先塋

2016년 10월 4일

安東權氏 典翰公 雲谷直系 大宗會 會長 權五榮

檢校公派祖 秋享祭 안내

謹啓時下

仲秋之節에 派親님 평안하심을 仰祝 하옵니다.

就而 아뢰올 말씀은 우리 검교공파종회의 연중최대 행사인 파조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많은 참제를 희망하옵니다. 각 가정 언제나 건강들 하옵시고 만복이 充滿하시옵길 祝願하옵니다.

◇일시: 2016년 10월12일(음력9월12일 中丁日) 水요일 오전10시

◇장소: 경북 상주시 공검면 울곡리 파조단소 2016년 10월 1일

◇연락처: 총무부장 권영호 H.P 010-9355-2968

안동권씨검교공파종회 회장 권태강 H.P 010-6345-0001

“안동권씨 울산종친 한마음축제”

△일시: 2016년 10월 30일(09:00~17:00)

♣ 행사계획 ♣

- △장소: 함월 구민운동장(성안동) (1부) 개회식
- △주관: 안동권씨 울산 청장년회 (2부) 각종게임
- △후원: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및 울산지역 9개 친목회 가족 및 울산거주 안동권가면 누구나 (3부)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

미리 공지하오니 각 친목회 회장, 총무님께서 이 날 시간 꼭 비워두시고 많은 일족이 참석하시어 즐겁고 화합의 장이 되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참석자에게는 20,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지급됩니다. 각 친목회 총무님께서 10월 20일까지 참석 인원파악 하시어 통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 광고내실 증진은 10월 8일까지 명함제출 바랍니다. A4용지 전면광고 100,000원, 반면광고 50,000원

청장년회 사무국장 권영목 (010-6476-8259)

창화공추향안내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서곡리 민통선내 창화공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14世 贊成事 昌和公 諱準)의 추향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본손은 물론 방손여러분의 많은 參祭바랍니다.

■ 일자: 2016년 10월 23일(넷째일요일)12시

■ 교통편: 서울 광화문 세종로 문화회관 옆에서 9시 30분 전세버스가 출발함

■ 지참물: 주민등록증 지참 ■ 연락처: 창화공 종회장 권병선

2016, 10, 1

안동권씨 창화공종회 회장 권병선